

##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신사도개혁운동

양 현 표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실천신학

### 1 들어가는 말

신사도개혁운동에 대하여 탁월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정이철 목사는 그의 저서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에서 신사도개혁운동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으며, 현재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sup> 신사도개혁운동이 전 세계 기독교계에 번지고 있으며, 그 파급력과 성장 속도가 놀랍다. 「The World Christian Database」에 의하면 이미 2001년에 전 세계 5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신사도개혁운동 교회에 속해있으며,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한다.<sup>2</sup> 한국 교회 역시 신사도개혁운동

---

\* 논문투고일 : 2014. 4. 30  
 논문수정일 : 2014. 6. 15  
 게재확정일 : 2014. 6. 20

1 정이철, 『신사도운동에 빠진 교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44.

의 활동 무대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신사도개혁운동만이 성장이 멈춘 한국 교회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절대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sup>3</sup>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신사도개혁운동이 과연 성경적인 교회 운동인가를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복음주의 권에 속한 대부분의 정통 교회들은 이 운동을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종의 사이비(Sect)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옹호자들은 이 운동이야말로 거스를 수 없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강변하고, 비판자들을 향하여 성령의 자유로운 사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사도개혁운동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이 당연히 요구된다 하겠다.

필자는 본 논고를 통해 신사도개혁운동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그들이 주장한 핵심 주장 몇 가지를 살펴본 후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는 신사도들(New Apostles)의 존재와 그들의 은사, 즉 초대 교회에 존재했던 사도직과 그 사도들이 보인 초자연적 은사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도 현존하는가에 관해 답하려 한다. 또한 한국에서의 신사도

---

2 The New Apostolic Reformation is made up of hundreds of churches and organizations that are led by apostles and prophets who share a distinct theology. Many of these churches and organizations have joined “apostolic networks.” These apostolic networks are made up of, in some cases, hundreds of churches and organizations that submit to the leadership of a single apostle, such as 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 - a network of over 12,000 churches and organizations under NAR apostle Ché Ahn. The NAR movement is responsible for much of the explosive church growth occurring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Holly Pivec, “The New Apostolic Reformation: Influence and Teachings,” 『ApologeticsIndex』 <http://www.apologeticsindex.org/2977-new-apostolic-reformation-overview>, 2014년 3월12일 접속.

3 “신사도개혁운동은 21세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세계 도처 그리스도교의 틀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21세기를 짊어질 차세대 한국 교회지도자들은… [신사도교회들의] 성장 원리와 전략을 적극 배우고 실천하여 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 건강한 선교의 대열에 참여해야 합니다.” C. Peter Wagner, *Church Quake*, 홍영표 역, 『21세기 교회 성장의 지각변동』 (서울: 이레서원, 2000), 7. “옮긴이 서문”에서 재인용.

개혁운동 현황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결론으로서 필자의 소견을 적으려고 한다.

## 2 신사도개혁운동의 유래

신사도개혁운동은 1990년대 이후 일어나고 있는 성령운동 혹은 은사운동으로서, 와그너가(Peter Wagner)가 1997년에 정의한 교회 성장과 관련된 이론이다. Wagner는 이러한 신사도 운동을 처음에는 “탈교파주의”(“Post Denominationalism”)으로 불렀다가, 1996년 이후 “신사도개혁운동”(New Apostolic Reformation Movement, NAR)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sup>4</sup> 와그너는 초대교회를 제1사도 시대라는 전제하에, 2001년부터 “제2사도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sup>5</sup> 이 제2사도 시대의 사도들의 활동을 신사도개혁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신사도개혁운동은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았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도 2세기의 성령운동 몬타니스주의(Montanism)<sup>6</sup>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사도개혁운동의 실제적인 기원은 오순절파/카리스마파 (Pentecostal/Charismatic) 성령운동을 촉발시킨 1906년의 아주사 부흥운동(Azusa Revival)<sup>7</sup>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주사 부흥

4 “나는 신사도개혁운동에 기초한 신학대학원 과목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한 이름이 필요했다. 나는 몇 년간 신사도개혁운동의 이름을 ‘탈 교파운동’ (‘Post Denominationalism’)이라는 말로 실험해보았다. … 그래서 나는 이 운동에 ‘새로운 사도개혁(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C. Peter Wagner, *The New Apostolic Churches*, 홍용표 역, 『신사도교회를 배우라』 (서울: 서로사랑, 2000), 22-23.

5 C. Peter Wagner, *Changing Church*, 김영우 역,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 (서울: 웨키나, 2006), 14-15.

6 몬타니스주의는 2세기에 성령강림과 예언적 열성을 통해 말세의 임박을 외친 신비적 종파이다. 당시 교회의 타락에 대한 일종의 신비주의적 반응이었다.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유희기 역, 『기독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8), 54.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1930-40년대의 “늦은 비 운동”(New Order of the Latter Rain)<sup>8</sup>, 1980년대 “캔자스시티 선지자 그룹”(Kansas City Prophets)<sup>9</sup>, 1980년대 워버(John Richard Wimber)<sup>10</sup>의 “빈야드 운동”<sup>11</sup>(Vineyard Movement of Christianity), 1994년 아넛(John Arnott)의 토론토공항교회(Tronto Airport Christian Fellowship)에서 일어난 “토론토 블래싱”(Toronto Blessing)<sup>12</sup> 등을 거쳐서 신사도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

7 윌리엄 세이모어(William Seymore)가 캘리포니아 아주사에서 시작한 기도 모임으로 촉발된 성령운동이다. 성령세례와 방언을 “종말론적인 표적과 두 번째 오순절 시대의 상징”으로 보고, 교회사에 있어서 마지막 부흥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생각했다.” 정이철, 『신사도운동에 빠진 교회』, 16.

8 율2:23을 근거로 하여, “사도행전의 시대를 ‘이른 비’의 시대로 규정했다. 아주사 부흥의 성령과 방언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롭고 최종적인 종말 부흥의 시대를 ‘늦은 비’로 규정했다. 정이철, 『신사도운동에 빠진 교회』, 18. 이 운동은 윌리엄 브랜햄(William M. Branham, 1909-1965) - 조지 호턴(George Hawtin)과 헌트(P. G. Hunt)의 캐나다 “샤론 형제회” - 머틀 비울(Myrtle Beall, 1896-1979)의 베데스다 선교 성전(Bethesda Missionary Temple) 등으로 명맥이 유지하다가 미국 오순절 교회의 정죄를 받은 후 잠적을 감추었으나 신사도개혁운동을 통해 되살아났다.

9 마이크 비클(Mike Bickle), 밥 존스(Bab Jones), 폴 케인(Paul Cain) 등이 캔자스시티 선지자 그룹을 형성했으며, 계시의 점진성과 사도와 선지자 직분의 복원(35명의 바울 수준의 사도들 출현)과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예언의 유효성을 주장했다. 비클이 개척한 캔자스시티 펠로우십 교회는 이후 메트로 크리스천 펠로우십교회로 이름이 바뀌었고 3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 1999년에 마이클 비클은 이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의 IHOP(International House of Prayer)을 세웠으며, 1983년에 들었던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24시간 기도하라는 음성을 따라 24시간 기도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전 세계에 신사도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이철, 『신사도운동에 빠진 교회』, 26.

10 1963년 웨이커 교도로 회심했으며, 1974년 와그너에 의해 풀러 신학교의 교회성장연구소 디렉터로 활동했고, 1977년 유명한 성경 교사로서 Anaheim Vineyard Christian Fellowship 설립하여 1994년까지 목회했다. 풀러신학교의 MC510 “The Miraculous and Church Growth”(1982-1985) 강좌를 통해 세계적으로 빈야드 운동을 퍼뜨렸다.

11 빈야드 운동의 강조점은 능력전도(Power Evangelism)와 능력의 전이(Impartation)라고 하겠다. 능력전도(Power Evangelism)란 단지 방언뿐만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Sign and Wonder), 즉 치유, 예언, 축귀 등의 능력을 의미한다. 진동하는 현상, 꼬꾸라지는 현상, 술 취한 행동, 몸부림과 경련의 현상, 흐느껴 우는 현상, 드러누워 방언, 짐승의 소리, 주체하지 못하고 한 없이 깔깔거림 등이 현상 등이 워버는 이러한 모든 현상이 성령의 임함 때문에 나

그런데 1989년, 각각 개별적 활동을 하던 빈야드교회의 워버와 캔자스 시티 선지자 운동의 비클(Mike Bickle)이 연합함으로써 신사도개혁운동의 통일된 구조가 비로써 드러났다. 여기에 신학자 와그너(C. Peter Wagner)가 합류함으로써 신사도개혁운동이 공식적으로 태동하게 된다. 정이철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시 존 워버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많은 사상적 변화를 경험했던 피터 와그너도 캔자스시티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에 영향을 받았다. 이때부터 그의 사상 속에 사도와 선지자직의 복원을 비롯한 신사도 운동의 신학적 형태가 짜이기 시작했다 … 결국 2000년에 텍사스 주의 달라스에서 피터 와그너 등이 중심이 되어 사도들의 모임인 ‘국제사도연맹’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Apostles, ICA)이 결성되어 신사도 운동의 구체적인 형태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sup>13</sup>

신사도개혁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와그너의 신학적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그는 그 자신을 사도 중의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

---

타나는 능력이라고 가르쳤다. John Wimber & Kevin Springer, *Power Evangelism*, 이재범 역, 『능력치유』 (서울: 나단출판사, 1995), 351-363. 능력의 전이(Impartation)는 “늦은 비 운동”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안수나 기타 접촉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쁨 부음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성경이나 교리나 신학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방해하는 걸끄러운 산물로 여겼다. “현대의 서구 교회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기사와 이적을 통한 능력 전도가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성경공부, 교리, 지식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Wimber & Springer, 『능력치유』, 186.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성경말씀과 교리들을 단호하게 내팽개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이철, 『신사도운동에 빠진 교회』, 30.

12 1994년부터 존 아넷(John Arnott)의 토론토공항교회(Toronto Airport Christian Fellowship)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 신비적 부흥운동이다. 주체하지 못하고 웃는 현상이 무더기로 나타났기 때문에 거룩한 웃음운동(Holy Laughter Movement)라고도 부른다. 정이철, 『신사도운동에 빠진 교회』, 36.

13 정이철, 『신사도운동에 빠진 교회』, 35.

으며, 그는 마9:17을 인용하여 신사도개혁운동이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4</sup> 오늘날의 전통 교회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종교의 영”(the Spirit of Religion) 위에 세워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종교의 영은 물론 거짓 영으로 신사도 운동을 방해하는 영이다.<sup>15</sup> 신사도개혁운동의 발전에 관한 정이철 목사의 글을 다시 한 번 인용함으로 신사도개혁운동의 유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윌리엄 브랜햄의 늦은 비 운동이라는 미혹의 영이 폴 케인과 밥 존슨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미국 교회 속에 잠입하여 뿌리 내렸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흐르던 물줄기는 다시 1980년대 캘리포니아와 1990년대 토론토에서 발원하여 세계 교회를 휘감는 거대한 빈야드 강이 되었다. 또한 그 강에 조금 늦게 합류한 마이크 비클이 있다. 그가 후에 따로 떨어져 나와 캔자스시티에서 IHOP 기도원을 만들고서 물결을 더 크게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신사도 운동이다.<sup>16</sup>

### 3 신사도개혁운동의 주장

이제 신사도개혁운동이 말하는 주요한 주장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은 와그너의 몇 권의 책을 통해서, 그리고 신사도개혁운동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신사도개혁운동의 사도나 선지자로 불리는 릭 조이너(Rick Joyner),<sup>17</sup> 빌 하몬(Bill

14 Wagner, 『21세기 교회성장의 지각변동』, 21-22, 37-39.

15 “종교의 영은 종교적 수단들을 사용하여 변화를 막고 현상을 유지하는 일을 맡은 사탄의 사자다.” Wagner,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 22.

16 정이철, 『신사도운동에 빠진 교회』, 79.

17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MorningStar Fellowship of Church” (MFC) 설립 및 담

Hamon),<sup>18</sup> 자니 엔로우(Johnny Enlow),<sup>19</sup> 신학자 케니스트레시(David Cannistraci) 등의 저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 3.1 오중목회(Five Fold Ministry)

신사도개혁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사도의 직분과 능력의 복원이다. 그들은 초대교회 이후 잃어버렸던 사도직이 현시대의 교회에 복원되고, 따라서 사도은사 역시 현시대의 교회 안에서 실행된다고 믿는다.<sup>20</sup> 그들은 사도직 복원의 성경적 근거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엡4:11)로 삼는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 선지자(예언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의 다섯 가지 직분이 교회 안에 지금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신사도개혁운동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사도는 세속화 된 사탄의 교회들과 교권주의에 물든 사악한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려다가 잃어버린 직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시대에 그 잃어버린 직분들을 복원시키셨다는 것이다. 와그너는 “신사도개혁운동의 가장 급진적인 특징은 사도의 직임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널리 인정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sup>21</sup>고 말하고 있다. 사도직의 복원

---

임목사이다.

18 스스로를 선지자로 여기며, 미국 플로리다의 “Christian International Ministries”를 세워 예언 사역을 하고 있다.

19 플로리다의 “Daystar International Fellowship”의 목사이다.

20 David Cannistraci, *Apostles and the Emerging Apostolic Movement* (Ventura: Renew Books, 1996), 90-91. Wagner, 『21세기 교회성장의 지각변동』, 127-151.

21 Wagner,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 14.

을 강력히 주장한 케니스트레시(David Cannistraci) 역시 사도직의 복원을 막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사도직의 복원을 사단에 대한 승리로 여기었다.<sup>22</sup>

사도직이 복원됨으로 인해 사도는사도 복원되었음은 당연하다. 신사도개혁운동은 주장하기를, 이 시대의 사도들 역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했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고후12:12)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이적, 신유, 귀신축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등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실행한다고 주장한다.<sup>23</sup> 이 시대의 사도나 선지자의 능력은 성경시대의 사도가 행한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며,<sup>24</sup> 심지어 예수님이 행한 기적보다도 뛰어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5</sup> 예를 들어 병원 건물에 안수함으로 인해 병원 안의 모든 병자가 일시에 고침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중력과 같은 자연의 법칙에 예외가 발생하는 명령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다.<sup>26</sup> 신사도개혁운동이 주장하는 사도의 능력은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더 놀라운 주장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꿈과 환상을 직접 받는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의 새로운 계시가 사도를 통하여 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능력 여부에 따라 다섯

22 Cannistraci, *Apostles and the Emerging Apostolic Movement*, 79.

23 케니스트레시는 사도의 초자연적 능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거대한 군중을 모은다. 2) 안수를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4) 계시의 영을 갖고 있다. 5)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 6) 사탄의 무너뜨릴 권세를 갖고 있다. 6) 악인에 대하여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다. 7)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 Cannistraci, *Apostles and the Emerging Apostolic Movement*, 163-171.

24 Rick Joyner, *The Apostolic Ministry*, 광정남 역, 『사도적 사역』 (서울: 순전한 나드, 2005), 191.

25 C. Peter Wagner, *Dominion*, 홍정식 역, 『Dominion』 (과천: WLI Korea, 2007), 130.

26 Joyner, 『사도적 사역』, 54.



가지 직책에는 분명한 서열과 사역의 한계가 있다. 사도는 다섯 직분 중에서 가장 우월한 지위이다. 그 이유는 과거의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의 사도 역시 새로운 신적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교회에 적용함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sup>27</sup> 다음으로 선지자이다. 선지자 역시 신적계시를 받는 직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하몬(Bill Hamon)과 같은 유력한 선지자는 사도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sup>28</sup> 복음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사도나 선지자에 비해 열등한 직분이다. 이들은 사도나 선지자에게 순종해야만 하며, 이들의 역할은 이미 성경에 나타난 옛 계시나 혹은 사도나 선지자가 받은 새 계시를 가르치는 것으로 제한된다.<sup>29</sup>

### 3.2 왕국의 복음(Gospel of the Kingdom)

“왕국의 복음”은 전통적인 “구원의 복음(Gospel of Salvation)”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왕국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복원된 사도와 선지자들의 리더십을 통해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지구)을 실제로 통치(Dominion)하게 하신다는 내용의 복음이다. 신사도개혁운동가들은 이러한 왕국의 복음은 전통적인 구원의 복음보다 우월하고 완성된 복음이라고 주장한다.<sup>30</sup>

27 Wagner,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 14.

28 Bill Hamon, *Prophets and the Prophetic Movement* (Shippensburg, PA: Destiny Image Publishers, 1990), 160.

29 Bill Hamon, *Apostles, Prophets and the Coming Moves of God* (Shippensburg, PA: Destiny Image Publishers, 1997), 123-125.

30 Wagner, 『Dominion』, 81.

“왕국의 복음” 이론은 신사도개혁운동의 또 다른 주장인 “통치론(Dominionism/Dominion Theology)” 혹은 “현세왕국(Kingdom Now)” 이론으로 연결된다. 신사도개혁운동이 주장하는바, 땅의 통치는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리더십을 통해 이루어내야만 하는 사명이다. 원래 인간은 이 땅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그 통치권을 상실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통치권이 회복되었으며, 이 일을 위해 사도와 선지자를 다시 복원시키셨고, 오늘날 교회는 그 복원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실제로 땅에 대한 통치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sup>31</sup>

결국 “통치론”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며, 사도나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초자연적 이적은 그 통치권을 신속하게 되찾는 절대적 도구라고 주장한다. 와그너는 이 “통치론”의 근거를 주기도문(마6:9-13)에서 찾으며, 통치론의 수행을 지상대명령(마28:18-20)의 완수로 보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32</sup> 라고 했으며, 또 지상대명령에 나타난 “모든 민족”(“all nations”)을 개인이 아닌 실제 지구상의 국가들과 특정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sup>33</sup>

### 3.3 칠대 산 정복(Seven Mountain Mandate / Seven Mountain Prophecy)

신사도개혁운동은 “통치론”을 펼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칠대 산 정복”으로 말하고 있다. 칠대 산은 이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산들을 의

---

31 Wagner, 『Dominion』, 76-89.

32 Wagner, 『Dominion』, 8-9, 75.

33 Wagner, 『Dominion』, 87.

미하는데, 정부, 방송, 가정, 경제, 교육, 종교, 예술 등의 일곱 가지 사회적 도구들을 의미한다. 미국의 사도라고 칭해지는 앤로우(Johnny Enlow)는 이 산들을 사회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기둥들로 말하면서, “[미국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를 정복하기 위해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sup>34</sup> 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칠대 산 중에서도 “정부”라는 산은 교회(사도)가 반드시 통치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산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다른 여섯 가지의 산을 다스리고 조정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을 만들기 때문이다”<sup>35</sup> 앤로우는 하나님께서 지금 “정부”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 특별한 사도를 준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6</sup>

### 3.4 전략적 차원의 영적전쟁(Strategic-Level Spiritual Warfare)

신사도개혁운동이 말하는 전략적 차원의 영적전쟁은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몰아내는 전쟁을 의미한다. 신사도개혁운동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권세를 잡은 사단들(Territorial Spirits)이 있다. 그 사단들을 몰아내야만이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어 땅의 통치력을 회복할 수 있다.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의 영적 전쟁은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사용하며, 유혹에 대한 개인적인 승리, 그리고 때로는 개인을 사로잡은 사단을 몰아내는 것 등이다. 그러나 신사도개혁운동의 영적 전쟁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지역의 고위급 사단과의 전쟁이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단10:13, 20을 사용한다. 즉 본문 속의 “바사 군주”가 페르시아 제국을

34 Johnny Enlow, *The Seven Mountain Prophecy: Unveiling the Coming Elijah Revolution* (Lake Mary, FL: Creation House, 2008), 43-44.

35 Enlow, *The Seven Mountain Prophecy*, 62

36 Enlow, *The Seven Mountain Prophecy*, 67.

다스리던 사단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 신사도개혁운동주의자들은 영적도해(Spiritual Mapping), 땅 밟기 중보기도(Prayer Walk), 전쟁기도와 예배(Warfare Prayer and Warfare Worship), 동일시 회개(Identificational Repentance) 등의 전술을 제시하고 있다.

### 3.5 종말시대의 부(富)의 대 이동(The Great End-Time Transfer of Wealth)

와그너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sup>37</sup>고 했다. 그리고 “1990년대 초기부터 우리나라와 세계의 각 지역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다”<sup>38</sup>고 주장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든 악한 자들의 물질적 재원을 이 땅의 사도들에게로 옮기실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사도들에게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3.6 종말시대의 대 회심(Great End-Time Harvest)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의 회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유래가 없는 최다 영혼의 수확이 될 것이라고 한다. IHOP의 비클(Bickle)은 10억에서 20억 명이

---

37 Wagner, 『Dominion』, 232.

38 Wagner, 『Dominion』, 235.

회심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이 영적 수확은 사도와 선지자와 그들의 추종자들이 행하는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 3.7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Manifest Sons of God<sup>39</sup>)

사도와 선지자에 의해 새로운 계시를 지속적으로 접한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초자연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드러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생에서 병과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대리인이 된다는 것이다.<sup>40</sup> 이들은 이러한 주장의 성경적 근거로 롬8:19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를 제시한다.

## 4 신사도개혁운동의 주장에 대한 개혁주의의 비판

지금까지 신사도개혁운동이 주장하는 주요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사실 이들의 모든 주장은 개혁주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풀이한 결과이다. 신사도개혁운동은 그들의 모든 주장을 펼칠 때 진리의 원천인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그들이 경험하고 관찰한 현상으로부터 그들의 논거를 시작한다. 성경은 단지 그들의 그 현상을 추인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사용하는 대부분의 성경 구절들(엡4:11-13; 엡2:20; 고전12:28;

---

39 신사도개혁운동에서는 “Manifest Sons of God” 과 같은 개념으로 “New Breed,” “Overcomers,” “Joel’s Army,” “Elijah Generation” 등을 사용하고 있다.

40 Hamon, *Apostles, Prophets and the Coming Moves of God*, 265-266.

마6:9-13; 행3:21; 고전15:24-25; 롬8:19; 단10:13,20)은 그들의 경험과 관찰된 현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기에 성경 해석과 적용이 바르지 않고 단편적이다.

필자는 제한된 여건상 신사도개혁운동의 모든 주장을 비판하려고 하지 않는다. 필자는 그들의 주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며, 신사도개혁운동의 가장 중요한 두 기반, 즉 이것들만 무너지면 신사도개혁운동의 신학적 사상적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두 기둥 중에서 “사도직의 현재성”에 관해서만 비판하려고 한다. 또 다른 한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계시의 현재성”은 본 논고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사도직의 현재성”을 비판함에 있어서 필자는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첫째는 성경에 나타난 사도의 자격을 규명하는 관점에서, 둘째는 사도와 관련된 본문 해석학적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성경의 속성과 관련된 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 4.1 성경에 기록된 사도의 자격과 용례

“사도”(“Apostolos”)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보내다”라는 의미의 “*apostello*”로부터 비롯되었다. 키텔(Gerhard Kittle)은 말하기를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라는 신학적 토대 위에서 사용되었다”<sup>41</sup>고 했다. 그러므로 “*apostolos*”라는 단어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사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파할 권세를 주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처음 시작되

---

41 Gerhard Kittle & Gerhard Friedrich, eds., “Apostolos,”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5), 421.

었다.<sup>42</sup> 즉, 사도직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라는 호칭이 반드시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성경을 보면, “사도”라는 호칭은 적어도 네 가지 용례로 나타나 있다.

첫째로, 이 호칭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히3:1,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요17:3, “그가 보내신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용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보내신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로 묘사하기 위해서이다. “사도”라는 단어의 두 번째 용례는 12명의 제자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도”라는 호칭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예수님에 의해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아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기반이 되었다.

“사도”라는 단어의 세 번째 용례는 바울에게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자이다(고전15:8).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딤후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이방 세계로 보냄을 받아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반이 되었다(롬1:1: 고전1:1). “사도”라는 호칭의 마지막 용례는 바울 서신서에 나타난다. 12명의 제자들 외에 바울에 의해 사도라고 불린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행14:4,14), 실라와 디모데(살전1:1; 2:6-7), 안드르니고와 유니아 등이다. 사실 이 마지막 용례가 신사도개혁운동이 주장하는 사도의 지속성의 근거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사도로 호칭된 이들이 누구인가? 과연 이들 역시 12명의 제자와 동등한 권위와 은사를 가진 동일한 반열의 사도로 간주될 수 있는가? 아니다. 이들이 누구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바나바를 보자. 바

---

42 Kittel & Friedrich, “Apostolos,” 422.

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떠났다. 또한 바나바는 바울이 고후8:23에서 말한 “여러 교회의 사자(‘*Apostolos*’)들” 중의 한 사람임에 분명하다. (“사자들”이 원문에는 “사도”이다. 그러나 여러 번역본에서는 “대표자” “파송자” “사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라는 선지자이었다(행15:32,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동행자였다(행15:36-41). 그는 데살로니가서를 바울과 함께 기록했다(살전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 편지하노니”; 살전2:6-7, “우리는”). 그는 또한 베드로를 위한 대필자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벧전5:12,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다. 바울과 동행한 선교사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다. 바울은 그에게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장로를 임명할 권한을 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나바,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공통점은 사도 바울의 직접적 감독을 받고 있는 자들이며, 바울의(사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이다. 또한 이들은 초대 교회의 선교와 목회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다.<sup>43</sup> 바울은 분명 그들이 바울 자신의 권위를 위임받아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그들을 사도로 언급하였을 것이다.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 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하나는 그들이 사도라는 해석과 다른 하나는 그들이 사도들의 존중을 받았다는 해석이다(롬16:7, 한글 성경,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영어 성경, “They are outstanding among the Apostles”). 따라서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의 경우는 해석상의 난제로 인해 사도로 분류되었는지조차도 불분명하다. 필자는

---

43 Paul Barnett, “Apostle,” in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eds. Gerald F. Hawthorne, Ralph P. Martin, Daniel G. Rei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3), 47.



한글 성경의 번역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그럴 경우 이들 역시 사도의 인정을 받은, 사도의 직접적 권한을 위임받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다.

따라서 사도라고 불린 이 사람들에게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들은 12명의 사도들과 동일한 반열의 사도라기보다는 사도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사도의 권위를 위임받아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권위를 위임받아 목회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역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44</sup> 맥아더(John MacArthur)는 그의 에베소서 주석에서 “교회의 사자들”(“Messengers of Church,” 고후8:23)과 “그리스도의 사도들”(갈1:1; 벧전1:1)을 구별함으로 12명의 제자와 바울을 제외한 사도로 불린 사람들을 “교회의 사자”로 여기고 있는데,<sup>45</sup> 매우 타당한 구별이라 여겨진다. 와그너는 단순히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로 불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도의 지속성을 주장하지만<sup>46</sup> 이들이 당시의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도들은 누구인가? 진정한 사도는 열 두 제자와 바울뿐이다. 진정한 사도가 될 자격 요소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는 예수님에 의해 직접 지명되어야 하고 (마10:1-4; 눅6:12-16), 둘째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만 하며(행1:21-22; 고전9:1; 15:7-8), 셋째는 신적인 표적이 따라야 하며(고후12:12, “표적과 기사와 능력”), 넷째로 신적인 권위를 가진 계시를 받아야 하며(유1:17), 마지막으로 신약 교회의 기반(엡2:20)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추어야 진정한 사도이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자들은 오직 열 두 제자와 바울뿐이다.

따라서 진정한 사도는 성경 시대에만 존재했을 뿐 더 이상 지속될 수

44 Kittel & Friedrich, “Apostolos,” 422.

45 John MacArthu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Ephesians* (Chicago: Moody Press, 1986), 141.

46 C. Peter Wagner, *Your Spirit Gifts Can Help Your Church Grow* (Ventura: Regal, 1994), 181.

없고, 또 누군가가 대신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성경 시대의 사도들 외에 어느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사도의 자격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에베소서 4:11 주석에서,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잠시적으로 사용하신 직책”<sup>47</sup>이라고 했으며, 고린도전서 12:28 주석에서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어떤 직무는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다른 직무는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들은 처음부터 교회의 기초를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며, 또 이것은 얼마 후에는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sup>48</sup>라고 말함으로 사도의 직분은 일시적인 직분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칼빈 외에도 사도 직분의 종결은 여러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sup>49</sup>

사도직은 특정한 기간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주어진 직책이다. 사도

47 존 칼빈, 『칼빈성경주석: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5), 339.

48 존 칼빈, 『칼빈성경주석: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5), 369.

49 맥아더(John MacAthur)는 참된 사도는 맛디아를 포함한 12명의 제자와 바울뿐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 John MacAthur, *The MacA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1 Corinthians* (Chicago: Moody Press, 1984), 323; “사도와 선지자는 사도시대 이후까지 전승되지 않았다.” R. Kent Hughes, *Preaching the Word: Ephesians* (Wheaton: Crossway Books, 1990), 133; “교회의 목회적 직분으로서 사도들은 사도시대를 넘어서서도 계속되지 않았다.” F. F. Bruce, *The Epistle to the Colossian, to Philemon, and to Ephes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4), 346; “사도들이란 교회의 기반을 만들어 주고(엡2:20)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사의 의미를 신적으로 계시하는(엡3:5) 매체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단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자신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말했는데 이러한 것은 현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 일단 교회가 성공적으로 설립되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도들의 말씀이 글로 확정되고 사도의 사명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George 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3), 486; “사도들에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터를 닦는 독특한 임무가 주어졌다. 터를 닦는 것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 작업이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사역도 교회가 계속 건축되어갈 기초를 놓는 작업으로서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일이다.” 박영돈,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2), 110-111.

직의 지속성 혹은 복원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그토록 강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했다는 사실은 사도직이 숫자나 시대의 제한을 받았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4.2 사도와 관련된 성경구절의 잘못된 해석

신사도개혁운동은 고전12:28과 엡4:11을 통해서 사도직의 지속성을 주장한다. 즉, 고전12:28과 엡4:11의 말씀을 성령의 은사로 간주하고, 사도 은사가 계속 존재하며, 당연히 그 은사를 소유한 사도들이 현시대 교회에도 존재해야만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들이 은사를 의미하는 구절들인가?

먼저 고전12:28을 보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은사오용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한 편지이다. 그 중에 고전 12장은 은사의 바른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바울은 “몸”이라는 은유를 통해 교회를 설명하는 중에 28절에 이르러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charismata’*)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우리말 성경 번역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 그대로 번역한 영어성경(KJV)을 보면, 본문의 후반부를 “... then gifts (*‘charismata’*) of healings, helps, governments, diversities of tongues”로 번역하고 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까지는 독립된 직책으로 나열되어 있고, 병 고침과 돕는 것과 다스림과 방언은 “은사”라는 단어에 종속되어 있다. 이것이 원

문의 정확한 의미이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능력 행하는 자를 은사로 보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즉 본문의 “사도”는 “사도은사”를 가리키지 않는다.

나아가 본문의 “세우셨으니”의 헬라어 “*etheto*”는 영어로 “appointed”로 번역되며, 이것은 어떤 장소에 무엇을 위치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책에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0</sup> 그러므로 28절 전반부는 직책을 의미하고, 후반부는 영적 은사를 의미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피(Gordon Fee)는 이러한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바울이 성령과 사도직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없다.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그는 결코 그의 사도직이 비록 성령께서 선물(‘gift’)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의 은사(‘charism’)라고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sup>51</sup>

엡4:11에서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에베소서 4장의 중심주제는 교회의 통일성(“하나 됨”)이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이 사실은 4:7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Charis*”)가 교회에 주어짐으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울은 11절에서 밝히고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 삼으셨으니”라고 했다. “삼으셨으니”는 원문대로 번역하면 “주었다”(gave)이다.

정리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 여러 직분을 가

50 MacAthur, *The MacA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1Corinthians*, 322.

51 Gordon Fee, “Gift of the Spirit,” in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eds. Gerald F. Hawthorne, Ralph P. Martin, Daniel G. Rei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3), 344.

진 사람을 교회에 선물(gift)로 주셨다고 말한다. 만약 바울이 이곳의 직책을 은사로 여겼다면, 일반적으로 은사를 가리키는 “*charismata*”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야만 한다.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엡4:11이 은사 목록이 아님을 자명하게 말하고 있다 하겠다.<sup>52</sup> 결론적으로, 엡4:11의 직책들은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하나님은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 말씀의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다. 본문의 “사도”가 결코 “사도은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엡4:11과 고전12:28의 “사도”(apostolos)는 “사도은사”로 해석될 수 없다. 사도와 사도은사는 초대교회의 진정한 12사도와 바울에게만 적용되고 그들에게만 주어진 은사이다. 이러한 성경구절들은 오늘날 성령의 은사로서의 사도은사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 은사의 활용으로 인한 계시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 4.3 성경의 권위 부정

사도의 직분이 아직도 존재하고 더불어서 사도은사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신사도개혁운동은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신사도개혁운동은 성경시대에 존재했던 사도직과 사도은사가 복원됨으로 인해 그들을 통해 성경 외의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며, 성경 시대 사도들이 행했던 것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필요성, 권위성, 명료성, 그리고 충족성을 주장하는 개혁주의 성경관에 맞지 않다.<sup>53</sup>

---

<sup>52</sup> Andrew Lincoln, *Word Biblical Commentary: Ephesians*, vol. 42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0), 248-249.

특별히 현시대 사도들을 통한 추가적인 계시의 가능성과 당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성경 전체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단적 주장이라 하겠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성경 외의 추가적인 계시의 가능성을 부정한다.<sup>54</sup> 칼빈은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임무는 새롭고 들어보지 못한 계시들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우리를 이미 받은 복음의 교리로부터 멀리 떼어 놓기 위하여 새로운 종류의 교리를 지어내는 따위가 아니고 도리어 복음서가 추천해 주는 바로 그 교리를 우리들의 정신에 깊이 새겨 주는데 있는 것이다.<sup>55</sup>

라고 말함으로 성령은 말씀을 떠나 직접 계시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 다른 부분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사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틀림없이 받아 썼고 따라서 그들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후계자들은 성경에 봉인돼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직분만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실한 사역자들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복종하도록 하신 그 교리를 단단히 붙잡아야 할 뿐이라고 가르친다.<sup>56</sup>

53 John Armstrong, "Introduction: Two Vital Truths," in *The Coming Evangelical Crisis*, ed. John Armstrong, 김기찬 역, 『다가오는 복음주의의 위기』(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18-23.

54 이신열은 직접계시에 대해 "말씀과 별개로 주어지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독자적 차원을 강조하는 이중성"이라고 했으며, 또한 "성령의 특징이 삼위일체론적 일체성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신열,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설교에 드러난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개혁주의적 비판," 『개혁논총』 6권 (2007): 149.

5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편집부 역, 『영한 기독교강요』(서울: 기독교문서출판사, 1990), 1.9.1.

개혁주의자들은 사도직, 그리고 사도가 보였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한시적이었던 직분과 은사로 간주한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경이 사도들을 대신하여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고 믿는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사라진 자리를 차지한 것이 완성된 성경이다.”<sup>57</sup> “사도와 선지자는 무대에서 사라졌다(엡2:20).”<sup>58</sup> 그리고 그들이 활동했던 무대 위에 교회를 남겨놓았다.

## 5 한국의 신사도개혁운동 현황

본 논고를 시작하면서, 필자는 신사도개혁운동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어떤 부류들이 신사도개혁운동권에 속한 자들인가? 한국에도 자의든 타의든 스스로를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김재성 교수는 “2009년부터 한국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신사도 운동은 그 뿌리가 미국의 영터리 은사운동가들이다”<sup>59</sup>라고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신사도운동에 속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자신들을 신사도개혁운동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그 사실을 문헌으로 발표한 경우도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했다. 신사도개혁운동을 비판하는 정통교회들의 비판을 비판하는 비 문헌적 글들이 인터넷

---

56 Calvin, 『영한기독교강요』, 4. 8. 9. 김종휘는 “오직 성경으로”가 칼빈의 기본입장이었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계시에 있어서 오직 성경만이 실제적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한다. 김종휘, “칼빈의 Sola Scriptura,” 『개혁논총』 27권 (2013): 98.

57 정이철,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 85.

58 MacArthu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Ephesians*, 142.

59 김재성,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 (용인: 킹덤박스, 2013), 40.

공간에 수없이 떠돌고 있으나, 그들이 스스로를 신사도개혁운동가라고 자처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필자는 한국에서 신사도개혁운동은 신사도개혁운동이라는 명칭보다는 “성령운동”(혹은 “은사운동”)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우산 아래 머물면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어떤 집단을 신사도개혁운동으로 분류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고 본다.<sup>60</sup> 그리고 “성령운동”이란 큰 우산 속에 있기에, 각 교단들 역시 신사도개혁운동을 이단이나 사이비로 정확히 규정하기보다는, “주의요망” 혹은 “접촉금지” 등의 경고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현재 신사도 개혁운동에 대하여 구체적 견해를 밝힌 교단은 두 교단에

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이철, 이인규 등이 저술한 문헌이나 인터넷 기고 등을 통해 한국의 신사도개혁운동 부류를 알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문헌에서 밝히는 신사도개혁운동에 속한 부류는 전적으로 저자들의 주관적인 연구 결과임을 전제로 한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사도개혁운동과 관련된 단체나 교회는 하몬(Bill Hamon)이 설립한 「Christian International」의 한국 지부 「C. I. Korea」(책임자: 아가페 신학연구원 원장 김태진), 「WLI」(「Wagner Leadership Institute」) 한국지부(책임자: 과천 새서울 교회 홍정식, 예장 합신에서 2004년 목사 제명), 「한국 기독교 영성 총연합회」(예영수), 「HIM Korea」(이성대), 「엘리아 기도 운동」(김종필), 「에스터 기도 운동」(이용희), 「영동제일교회」(김혜자), 「큰 믿음 교회」(변승우)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이인규는 그의 웹사이트 기고를 통해 라이즈 업코리아(KHOP), 레위지파(다윗의 장막, 스캇 브레너), YDFC(24시간 기도의 집), HIS(국제사역자 학교), 아가선교회(이현숙, 홍의봉) JMI선교회(김희준), 뉴와인/원명하우스(손종태), 예수전도단(문희근), NLM(뉴라이프미션), 더데이미니스트리(TheDay), 아이리스미니스트리(김승환), IMN(이스라엘사역네트워크), CMN(대학선교네트워크, KCCN, 스캇 브레너), 의로운 해 선교회(서원석, 다니엘박), 포도나무교회(여주봉), KHOP(한성진), 제3시/하늘의 언어(김우현), 영화 “회복”(김종철) 등을 신사도개혁 운동 단체로 구분하고 있다. 이인규, “신사도 운동의 유래와 기원” <http://ikccah.org/1214>, 2014년 3월 22일 접속(이상의 인용은 저자들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한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공신력 있는 문헌을 통한 발표가 아닌 인터넷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신사도개혁운동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필자는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음.); 정이철 목사는 온누리교회 3인방인 손기철(「Heavenly Touch Ministry」), 김하중(「하나님의 대사」), 송만석(「Korea Israel Bible Institute」)을 비롯하여 「에스터 기도 운동」(이용희), 「인터콥」(최바울)까지도 신사도개혁운동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이철,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 255-455.



불과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측은 2007년 제57회 총회에서 신사도 개혁운동을 불건전한 사상으로 규정했으며 관련저술 탐독 금지와 간사 초빙 금지 그리고 집회 참여 금지를 결의했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측에서도 2009년 제94회 총회에서 신사도개혁운동의 이단성을 결지 목하고 참여금지를 결의한 바 있다.

이처럼 신사도개혁운동가들을 구별해 내기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이한 소리현상(짐승의 소리, 괴이한 웃음, 울음, 방언), 괴이한 육체현상(몸이 진동, 고꾸라짐, 술 취한 행동, 몸부림과 경련, 성령 춤), 육감적이고 가시적인 현상(쓰러짐, 금이빨, 웃음, 예언/점, 영전이/Impartation), 사머니즘적 주술행위(병 고침, 팔다리 교정, 천사출현, 환상) 등의 현상들을 성령의 역사라 주장하고 독려하는 집회나 교회는 신사도개혁운동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박영돈 교수는 그의 탁월한 저서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에서, 비록 신사도개혁운동이라는 말을 단 한 번(111쪽)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사도개혁운동의 현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박교수는 “성령운동”이란 이름 아래 유행하고 있는 이상 현상들, 즉 천국방문, 신비체험, 직통계시, 예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 임파테이션, 치유집회, 방언, 성령 세례 등을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성행하고 있음은 이미 한국 교회에 신사도개혁운동이 자리 잡았고 현재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박교수는 이러한 현상들을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제한한다는 생각으로 성경적인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다”<sup>61</sup>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김광렬 교수는 한국교회에서 교회성장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는 G12 역시 신사도개혁운동으로 결론짓고 있다. 김교수는

61 박영돈,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 12.

G12를 집중적으로 다룬 그의 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방언의 은사나 성령세례를 추구하는 G12 운동의 지도자들의 저서들과 삶의 모습 속에서 사도적 은사와 이적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제3의 물결과 밀접한 관계성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G12 지도자들이 말하는 “신사도직”에 대한 설명들 속에서 우리는 제3의 물결의 지도자 와그너의 가르침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다.<sup>62</sup>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매몰되어 신사도개혁운동을 성령운동이란 미명하에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대학원 수업을 통해 얻은 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개혁주의 교회라고 알려진 규모 있는 교회들까지도 교회 성장 방법의 하나로 신사도개혁운동의 현상들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인규는 그의 글을 통해 한국의 대형교회들인 Y교회, O교회, K교회, S교회, 또 다른 O교회 등이 신사도개혁운동의 집회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집회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sup>63</sup>

## 6 나가는 말

필자는 지금까지 신사도개혁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그들의 주장을 살

---

62 김광렬, “21세기 성령연구: 제3의 물결에 대한 개혁신학의 평가,” 『개혁논총』 17권 (2011): 133.

63 이인규, “신사도 운동의 유래와 기원” <http://ikccah.org/1214>, 2014년 3월 22일 접속. (이인규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한 판단에 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또한 공신력 있는 문헌을 통한 발표가 아닌 인터넷상의 내용을 인용한다는 사실 때문에, 실제로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신사도개혁운동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필자는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으며 실제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펴보고,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 “사도의 현재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비판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신사도개혁운동의 현황을 다루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본 논고의 제한된 목적상 신사도개혁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계시의 현재성, 즉 소위말해 직통계시에 관하여 다루지 못한 점인데, 이는 또 다른 기회를 통하여 반드시 연구되어야만 할 영역이라 하겠다.

필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비적 은사(Miraculous Gifts)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철저한 은사증지론자는 아니다. 성경의 신비적 은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들의 활용과 현상에 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어만 한다고 믿는다. 또한 필자는 모든 성령 운동이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이고 건전한 성령 운동을 인정한다. 기독교가 “신비”를 품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인정한다. 필자는 다만 성경시대의 그 사도와 동일한 사도들이 현재에도 존재하며 그들을 통해 신비한 능력과 현상이 일어난다는 신사도개혁운동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도직 복원과 사도은사의 재현은 비성경적인 주장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성경으로”를 거부하고 “성경 외 계시”(“Scripture Plus Apostolic Tradition”)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자가당착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이고 전통적 신학을 부인하는 자들만이 주장할 수 있는 이론이다. 사도는 오직 성경시대에만 존재했던 특별한 직무요 은사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도직의 복원에 기초한 신사도개혁운동은 비성경적인 종교운동이라 할 것이다.

와그너는 그가 “신사도개혁교회”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은 조롱받을 것인가? 역사가 말해 줄 것이다”<sup>64</sup>라고 묻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말해 줄 것이다. 역사를 멀리 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당장 신사도개혁운동의 바

람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어떤 현상이 오는지를 보면 안다. 워버가 죽은 후 그 왕성했던 빈야드 운동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IHOP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비클이 죽은 후에 보게 될 것이다. 개혁교회를 낳은 가족부대로 치부하고 신사도개혁운동 바람을 일으키는 한국의 몇몇 리더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곧바로 그들의 주장에 대한 진위가 판가름 난다.

아무리 흥왕했던 이단들도 그 이단의 수장이 죽은 후, 그저 한 번 분 먼지바람이었음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다. 그러나 진리의 정통신학은 때로 약해져 허물어질 것 같은 때도 있지만 그러나 도도히 역사를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신사도개혁운동도 분명 역사적이고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 기생하면서 먼지바람만 일으키다가 사라진 그 동안의 수많은 이단들의 운명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비 진리가 진리로 둔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혁주의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이러한 먼지바람들이 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의 신사도개혁운동의 출현과 흥황은 개혁주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여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렬. “21세기 성령연구: 제3의 물결에 대한 개혁신학의 평가.” 「개혁논총」 17권 (2011): 121-149.
- 김재성.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 용인: 킹덤복스, 2013.
- 김중휘. “칼빈의 Sola Scriptura.” 「개혁논총」 27권 (2013): 95-121.
- 박영돈.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2.
- 이신열.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설교에 드러난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개혁주의적 비판.” 「개혁논총」 26권 (2007): 125-151.
- 이인규. “신사도 운동의 유래와 기원.” <http://ikccah.org/1214>. 2014년 3월 22일 접속.
- 정이철. 『신사도운동에 빠진 교회』. 서울: 새 물결 플러스, 2012.
- 존 칼빈. 『칼빈성경주석: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서울: 성서교제간행사, 1995.
- \_\_\_\_\_. 『칼빈성경주석: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서울: 성서교제간행사, 1995.
- “ApologeticsIndex.” <http://www.apologeticsindex.org/2977-new-apostolic-reformation-overview>. 2014년 3월 12일 접속.
- Armstrong, John. “Introduction: Two Vital Truths.” In *The Coming Evangelical Crisis*, edited by John Armstrong. 김기찬 역. 『다가오는 복음주의의 위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 Barnett, Paul. “Apostle.” In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edited by Gerald F. Hawthorne, Ralph P. Martin, Daniel G. Rei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3.
- Bruce, F. F. *The Epistle to the Colossian, to Philemon, and to Ephes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4.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편집부역. 『영한기독교강요』. 서울: 기독교성문출판사, 1990.
- Cannistraci, David. *Apostles and the Emerging Apostolic Movement*. Ventura: Renew Books, 1996.
- Enlow, Johnny. *The Seven Mountain Prophecy: Unveiling the Coming Elijah Revolution*. Lake Mary, FL: Creation House, 2008.
- Fee, Gordon. “Gift of the Spirit.” In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edited by Gerald F. Hawthorne, Ralph P. Martin, Daniel G. Rei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3.
- Hamon, Bill. *Apostles, Prophets and the Coming Moves of God*. Shippensburg, PA: Destiny Image

- Publishers, 1997.
- \_\_\_\_\_. *Prophets and the Prophetic Movement*. Shippensburg, PA: Destiny Image Publishers, 1990.
- Hughes, R. Kent. *Preaching the Word: Ephesians*. Wheaton: Crossway Books, 1990.
- Joyner, Rick. *The Apostolic Ministry*. 광정남 역. 『사도적 사역』. 서울: 순전한 나드, 2005.
- Kittel, Gerhard & Friedrich, Gerhard.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5.
- Ladd, George E.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3.
- Lincoln, Andrew. *Word Biblical Commentary: Ephesians, vol. 42*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0.
- MacAthur, John. *The MacA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1 Corinthians*. Chicago: Moody Press, 1984.
- \_\_\_\_\_. *The MacA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Ephesians*. Chicago: Moody Press, 1986.
- Wagner, C. Peter. *Changing Church*. 김영우 역.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 서울: 웨키나, 2006.
- \_\_\_\_\_. *Church Quake*. 홍영표 역. 『21세기 교회 성장의 지각변동』. 서울: 이레서원, 2000.
- \_\_\_\_\_. *Dominion*. 홍정식 역. 『Dominion』. 과천: WLI Korea, 2007.
- \_\_\_\_\_. *The New Apostolic Churches*. 홍용표 역. 『신사도교회를 배우라』. 서울: 서로사랑, 2000.
- \_\_\_\_\_. *Your Sprit Gifts Can Help Your Church Grow*. Ventura: Regal, 1994.
-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유형기 역. 『기독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8.
- Wimber, John & Springer, Kevin. *Power Evangelism*. 이재범 역. 『능력치유』. 서울: 나단출판사, 1995.

## 국문초록

신사도개혁운동은 1990년대 이후 일어나고 있는 성령운동 혹은 은사운동으로서, 와그너가(Peter Wagner)가 1997년에 정의한 교회 성장과 관련된 이론이다. 단순히 와그너의 창작물이 아니라 20세기 초반 이후 비성경적이라고 규정된 여러 성령운동들의 복합체라 하겠다.

신사도개혁운동의 핵심은 초대교회의 사도가 아직도 승계되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도 역시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와 동일한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성경의 권위보다 우월한 계시를 지금도 받고 있으며 초대교회의 사도들보다도 탁월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여러 현상들을 성령의 역사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개혁주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사도직분은 초대 교회 이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신사도개혁운동 주창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도의 자격과 용례를 오해하고 있으며, 사도와 관련된 성경구절(고전12:28; 엡4:11)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완성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부류라 하겠다. 진정한 사도는 열 두 제자와 바울뿐이다.

사도직 복원은 비성경적인 주장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성경으로”를 거부하고 “성경 외 계시”(“Scripture Plus Apostolic Tradition”)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자가당착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이고 전통적 신학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사도는 오직 성경시대에만 존재했던 특별한 직무요 은사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도직의 복원에 기초한 신사도개혁운동은 비성경적인 종교운동이라 할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양적 성장에만 매몰되어 신사도개혁운동을 성령운동이란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신사도개혁운동, 사도직분의 계속성, 사도의 자격, 성경의 권위, 한국의 신사도개혁운동

## The Reformed's View on The New Apostolic Reformation Movement

Yang, Peter Hyunphyo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In 1997, Peter Wagner coined the term “New Apostolic Reformation” to an up-and-rising Spiritual gifts movement that is related to the theory of church growth. Wagner, however, was not the creator of this movement. He simply combined many non-biblical Spiritual movements after the early 20th century and termed the collection of movements as the “New Apostolic Reformation.”

The purpose of the NAR movement is to encourage the faith of the Apostles of the early Church. This movement supports the idea that the same Spiritual gifts and powers the early Apostles had still exist today. Thus, supporters believe that Apostles exist in today's Church.

At its root, the NAR believes that today's Apostles receive a Spiritual revelation that is far superior than those the Apostles of the early church received. Supporters of the NAR believe that they receive new insights and blessings that the early Church did not receive. They also believe today's Apostles can perform signs and miracles that are superior to those the original apostles performed. Similarly, they regard many of the miraculous symptoms as true works of the Holy Spirit when they are not based on Biblical truth.

The NAR Movement cannot be accepted by Reformed Theology because there is no Biblical basis to the movement. Contrary to the NAR, the Reformed Theology's belief is that Apostles do not exist after Biblical times. Those who believe in the ideas of the NAR misunderstand the qualifications of an Apostle and misinterpret Bible verses related to the office of Apostles (1 Cor. 12:28; Ep. 4:11). Furthermore, the NAR denies the authority of the completed Bible, which includes the belief that the only Apostles are the 12 Disciples and Paul. The idea that Apostles still exist today is unbiblical because they deny “Sola Scriptura” and insists “Scripture Plus Apostolic Tradition.” Followers of the NAR do not realize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d they deny



historical traditional theology. According to traditional theology, Apostles only existed during the Biblical era, in which the Twelve and Paul received special God-ordained gifts and powers. Therefore, the restoration of Apostles in today's Church is unbiblical, making NAR an unbiblical religious movement. Unfortunately, many churches in Korea accept the ideas and beliefs of the NAR as a God-ordained spiritual movement because of its connection to church growth.

*Key Words:* New Apostolic Reformation, continuity of office of Apostle, Qualifications of Apostleship, Authority of the Bible, New Apostolic Reformation Movement in Korea